

社 說

나랏빚 62조원 더 늘리는 내년 예산, 이게 무슨 '건전 재정'인가

윤석열 정부가 집권 후 두 번째 짜는 2024년 예산안을 발표했... 657조원 규모로 올해보다 18조원 더 늘렸다.

행할 예정이다. 국가 부채가 또 늘어날다는 뜻이다.

병사 월급을 월 135만원에서 165만원으로, 0세 아동 부모급여를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윤 정부의 시대적 사명 중 하나는 문 정부가 망친 국가 재정 건전성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다.

심각한 재판 지연 대책이 장기 미제 전담 법관 '2명' 증원이라니

서울중앙지법이 최근 재판 지연이 심각한 기업 전담 재판부 4곳에 '장기 미제 중점 처리 법관' 2명을 추가로 배치했다고 한다.

화를 명분으로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를 폐지하고, 판사들이 법원장을 투표로 뽑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했다.

전국 법원의 민사 1심 사건 중 2년 안에 판결이 나오지 않은 장기 미제 사건은 2017년 5345건에서 지난해 1만4428건으로 3배가 늘었다.

다행히 이규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고 한다.

'정율성 기념 사업' 한다고 광주 전남 공무원들 해외출장 53회

광주와 전남의 공무원들이 2010년부터 '정율성 기념 사업'을 명목으로 9년간 최소 53회 해외 출장을 간 것으로 확인됐다.

각을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정율성 공원에 국민 세금 48억원을 쓴다는 것도 문제인데...

회순군 방문단은 출장 보고서에서 "정율성 같은 훌륭한 분이 우리 학생 중에서 나왔으면..."

일부 5·18 단체들까지 정율성 공원 반대에 나섰다. 정부가 인정한 공법단체인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와 5·18 민주화운동공로자회는 4·19 단체와 함께 반대 성명을 냈다.

교권 회복 주도 '인디스쿨', 하나의 點으로 돌아가나

태평로

김민철 논설위원



지난 26일 국회 앞 도로를 가득 메운 교사들 집회는 광화문에서 보는 민노총·태극기 집회와는 좀 달랐다.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달 18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하자 전국 일선 교사들이 인디스쿨을 통해 결집했다.

“전교조는 가만 있어달라”며 서툰 목소리로 교사 집회 주도 49재 집회로 혼선 생겼지만 합리적 MZ 세력으로 커졌으면

말을 들었다. 이날을 기점으로 교권 회복 운동의 주도권은 인디스쿨로 넘어갔다.

원래 인디스쿨은 수업 자료를 공유하는 커뮤니티였다. 운영진은 20~30대 젊은 교사들이 주축이라고 한다.

일선 교사들이 이렇게 결집한 것은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악성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고, 아동 학대로 몰리는 것을 두려워했고, 일부 학생들 때문에 교실이 엉망이 되는 것을 누구보다 느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전과는 결이 다른, 교직 사회에 새로운 세력이 등장한 것이다. 원래 인디스쿨은 수업 자료를 공유하는 커뮤니티였다.

서로 일면식도 없는 교사 80여 명이 지난달 말 인디스쿨을 통해 모여 20여 일 만에 아동 학대 신고 대응 등 4대 과제에 대해 300쪽 분량의 연구 보고서를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잘나가던 인디스쿨이 서이초 교사의 49재일인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할지 문제로 큰 혼선을 노출했다.

49재 혼선은 인디스쿨이 하나의 커뮤니티여서 뚜렷한 지도력이 없기 때문에 생긴 결과일 수 있다.

인디스쿨에 “집회를 전면 취소하고 운영팀은 해체한 뒤 하나의 점으로 돌아가는 게 맞겠다”고 썼다.

김준의 맛과 섬 [153]

고창 바지락밥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조개를 꼽아라 면 단연 바지락이다. 인천의 섬 장봉도에서 부산의 섬 가덕도까지 바지락을 만날 수 있다.

역이다. 고창에는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도 있다. 곰소만을 대표하는 수산물은 바지락으로, 우리나라 바지락의 40%가량이 생산된다.

바지락밥에 팔려 나온 반찬이 신의 밥을 짓는다면 어떻게 될까. 굴밥은 익히 들었지만 바지락밥은 생소하다.



만나는 일은 즐겁고 행복한 일이다. 읍내도 아니고 면 소재지에서 말이다.

맛있는 점심과 함께 시간을 내 탐사르고장갯벌센터를 찾아보시길 권한다. 갯벌의 가치가 궁금하다면 해설을 요청해 돌아보는 것이 좋다.

대한민국 왼쪽 날개는 진보 아니다... 극좌주사파 날개짓이다

'보수·진보 양날개론'에 대한 윤대통령의 통찰, 정확하다 [한국 좌파의 전체주의적 민낯] 통렬하게 지적했다

'보수·진보 양날개론'에 대한 통찰

"새는 날아가는 방향이 같아야 오른쪽 날개와 왼쪽 날개가 힘을 합쳐 그 방향으로 날 수 있다. 시대착오적인 투쟁·혁명 같은 사기적 이념에 굴복하거나 휩쓸리는 것은 결코 진보가 아니다."

이 말은 바른 [보수진보 양 날개] 짓은 어떤 것이냐와 관련해, 정치적으로나 사상적으로 매우 중요한 논제다.

세계사는 자유·민주·개인·인권·시장·산업화를 계기로 근대문명으로 진입했다. 엄청난 발전이었다. 그 발전에 따른 부작용도 생겼다.

'양날개' 아니라 '외날개'만 허용하는 체제

그런데. 그런데 말이다.

- (1) 보수가 독재를 하며 진보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2) 진보가 독재를 하며 보수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3) 보수도 진보도 다 독재를 한다면?

- (1) = 파시스트 독재. (2) = 공산당 독재. (3) = 2차대전 중의 독(獨)소(蘇) 전쟁이다. 히틀러 극우 독재와 스탈린 극좌 독재의 전쟁이다.

결국 (1)(2)(3) 다 문명적이지 않다.

그렇다면 문명적 기준에 가장 맞는 것은? 자유·민주를 존중하는 보수와 자유·민주를 존중하는 진보가 각각, 보수 진영과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상태일 것이다.

대한민국 왼쪽 날개는 '민족해방 민주주의'

한국에선 이 문제가 어떻게 되어 왔나?

1987년에 민주화가 됐을 무렵, 어느 이름 있는 좌파 논객이 "새는 두 날개로 날아야"라고 말문을 열었다.

실제로 민주화 추세에 편승해, 진보 세(勢)는 그 후 급속하게 세졌다. 그런데 필자가 보기에 진보진영에 증대한 문제가 하나 있었다.

참으로 불행하게도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한국 좌파 진영은 주사파에 급속히 집주당했다. 한국 좌파의 주도권이 ▲ 독재적 좌파 ▲ 전체주의적 좌파 ▲ 극좌파의 수장으로 넘어간 것이다.

자유주의 타도가 무슨 소리인가? 군사독재를 타도한 후에는, 자유민주주의도 타도하겠다는 소리다. 수정주의 타도는 무슨 소리인가? 좌파를 해도 반드시 독재적 좌파를 해야만 한다는 소리다.

실제로 그들 패거리의 잘 알려진 인물 하나는 "보수를 소멸시키고 우리가 50년 집권해야 한다"고 떠들고 다녔다. 그들은 권위주의 시대에 [양 날개] 짓이 불가능했으니, 민주화되면 그것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민국에 '진보'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대착오적 투쟁·혁명 같은 사기적 이

념에 굴복하거나 휩쓸리는 것은 진보가 아니다"라고 한 것은, 바로 그런 [한국 좌파의 전체주의적 민낯]을 지적한 말이다.

주사파는 진보가 아니다. 그들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가 묘사한 [대형(big brother)의 나라] 사람들이다.

제발 공부 좀 하자. [주사파 = 진보] 좋아하네. 진보가 어디서 썩어나나?

newdaily.co.kr 뉴데일리.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8월 26일 게재 되었습니다. Includes QR code and social media links.